

Passion for ideas

2013년 1분기 기업설명회

2013. 4. 25

(주)제일기획



Disclaimer

본 자료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기준 영업실적입니다.
비교 표시된 과거 실적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작성된 영업실적입니다.

본 자료에 포함된 “2013년 1분기 실적”은 본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, 그 내용 중 일부는 회계감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“예측정보”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, 표현상으로는 ‘예상’, ‘전망’, ‘계획’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.

“예측정보”는 그 성격상 불확실한 사건들을 언급하는데, 회사의 향후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포함합니다.
환율, 이자율, 물가 등의 변동을 포함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, 신규사업 인수 및 매각 등을 포함한 회사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등이 대상입니다.

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회사의 실제 미래실적은 “예측정보”에 포함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I. '13년 1분기 재무현황

- 연결기준 요약 재무정보(K-IFRS 기준)
- 연결기준 영업총이익(매출총이익) 분석
- 연결기준 수익성 분석

연결기준 요약 재무정보(K-IFRS 기준)

(단위: 억원)

	'13년 1분기	'12년 1분기	%
영업수익	5,639	4,208	34.0
영업총이익	1,345	1,022	31.6
판관비	1,164	903	28.9
영업이익	181	119	52.1
영업외손익	△4	△24	-
금융손익	35	53	△34.0
관계기업투자손익	△1	2	-
법인세차감전손익	211	150	40.7
분기 순이익	137	98	39.8
지배기업소유지분순이익	130	94	38.3
비지배지분순이익	7	4	75.0

1분기 영업총이익(매출총이익) 분석

■ 연결기준 영업총이익 전년동기 대비 31.6% 신장한 1,345억원 실현

본사 영업총이익 전년동기 대비 9.1% 증가한 505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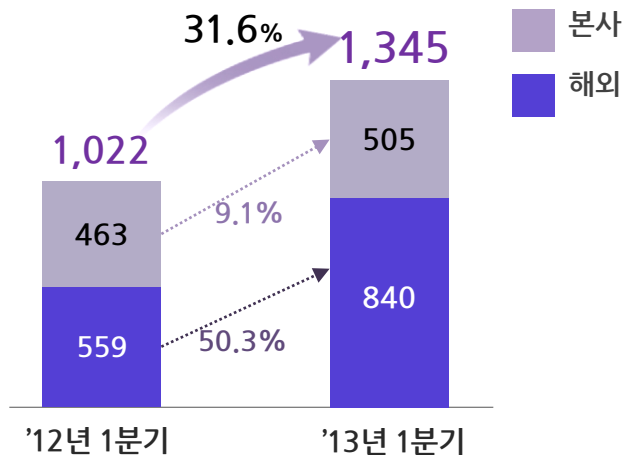
- 국내 광고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세 지속
- 기존 광고주 : 계열(삼성전자) 및 비계열(KT, 동서식품 등) 집행 증가
- 신규 광고주 : LH(기업PR), 아모레퍼시픽(마몽드), 오리온(마켓오) 등 집행 증가 효과

해외 영업총이익 전년동기 대비 50.3% 증가한 840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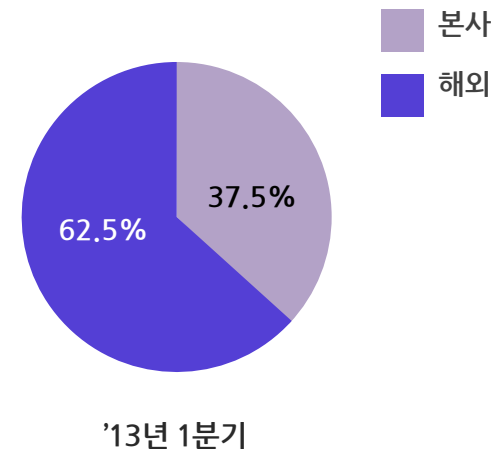
-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제품 마케팅 활동 강화 효과 및 리테일 실적 증가 등

▶ 연결 영업총이익

(단위: 억원)



▶ 연결 영업총이익 본사 및 해외비중



1분기 수익성 분석 (연결기준)

■ 영업이익, 전년동기 대비 52.1% 신장한 181억원

- 판관비는 우수 인력 충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8.9% 증가한 1,164억원
 - 인건비 31.2% 증가한 778억원, 경비 24.5% 증가한 386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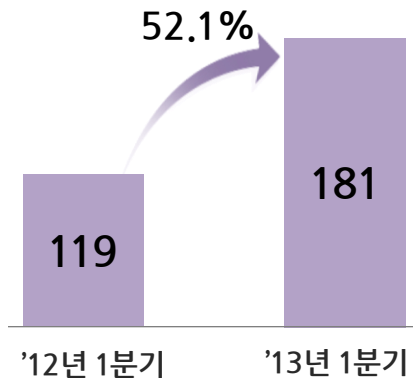
■ 영업외수지, 전년동기 대비 3.2% 감소한 30억원

- 영업외손익 △4억원, 금융손익 35억원, 관계기업투자손익 △1억원

■ 세전이익 전년동기 대비 40.7% 신장한 211억원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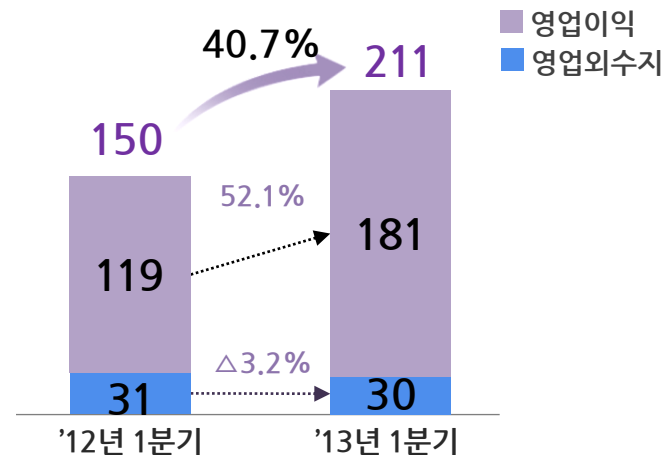
▶ 영업이익

(단위: 억원)



▶ 세전이익

(단위: 억원)



II. '13년 1분기 영업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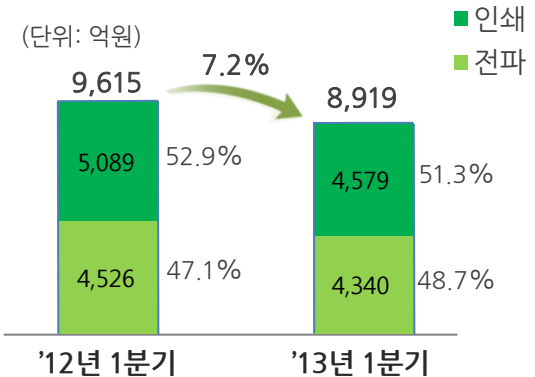
- 본사영업 현황
- 해외영업 현황

본사영업 현황

■ 국내 광고시장 현황

- 4매체 광고시장 전년동기대비 7.2% 하락한 8,919억원
 - 광고비 집행 : 정보통신, 금융(보험 및 증권), 식품順
 - 전파광고 전년동기 대비 4.1% 감소한 4,340억원 (종편 제외)
 - 인쇄광고 전년동기 대비 10.0% 감소한 4,579억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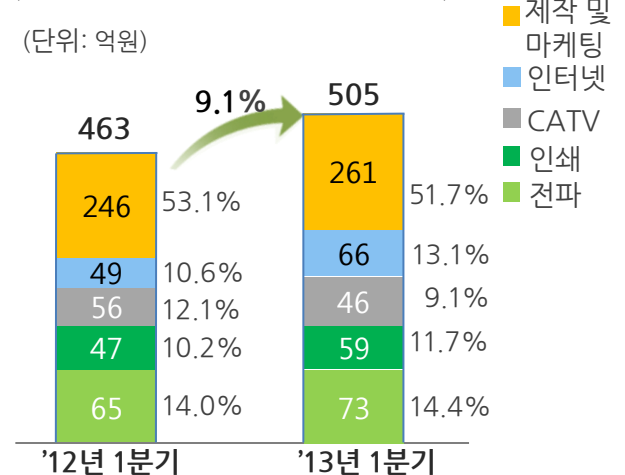
〈 국내 광고시장(4매체) 추이 〉



■ 본사 영업의 양호한 실적 시현

- 본사 영업총이익 전년동기대비 9.1% 증가한 505억원
 - 국내 광고시장 침체 불구 전년동기 대비 4매체 실적 상승 : 인터넷, 제작 및 마케팅 부문 집행 증가 지속
 - 4매체 영업총이익, 전년동기 대비 17.9% 증가한 132억원 : 전파광고 73억원(12.3% ↑), 인쇄광고 59억원(25.5% ↑)
 - 기타 매체부문 전년동기 대비 6.7% 성장한 112억원 : 인터넷 66억원(34.7% ↑), CATV 46억원(17.9% ↓)
 - 제작 및 마케팅 부문, 전년동기대비 6.1% 증가한 261억원

〈 당사 실적 : 4매체 및 뉴미디어 〉



본사영업 현황

■ 국내 신규광고주 개발 호조 : 연간 취급고 기준 508억원

- 한국관광공사 재영업 및 커피전문점 브랜드 최초 영입 등 신규 광고주 개발 순조
- 한국관광공사, 탐앤탐스 커피, KB국민카드 브랜드 캠페인 등

■ 국내 및 해외 광고제 수상으로 최고의 Creative 역량 입증

- Adfest (아시아태평양 광고 페스티벌) 총 11개 본상 수상(금7, 은2, 동2)
- 삼성전자 '인사이트' 캠페인 금상 4개 등
- 한국광고주협회 주관 "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" 9개 수상 : 동아제약 '박카스' 대상 등
- 한국광고학회 주관 "올해의 광고상" TV부문, SP(옥외광고)부문 수상 : 동아제약, S-Oil

■ 성공적인 광고 캠페인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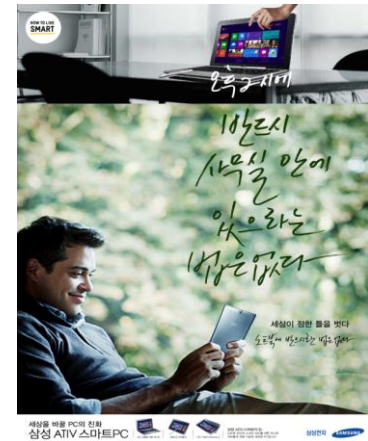
- 삼성전자 'Smart PC', 오리온 '초코파이', 맥심 '모카골드' 등



〈신규광고주 개발 확대〉



〈오리온 '초코파이' 캠페인〉



〈삼성전자 'Smart PC' 캠페인〉

해외영업 현황

■ 해외 비계열 광고주 신규개발 확대 : 연간 Revenue기준 220万弗

- 지속적인 해외 신규 광고주 개발로 글로벌 광고회사 위상 제고
 - Baltika Brewery (러시아맥주), Saudi Aramco(사우디국영석유) 등





〈해외 신규광고주〉

■ 삼성전자 글로벌 전략 제품 런칭 마케팅 수행

- Samsung Mobile Unpacked(미국) : 스마트폰 ‘갤럭시 S4’ 런칭 마케팅
- 글로벌 전시 : CES(1월, 미국), ISE(1월, 네덜란드), MWC(2월, 스페인)

■ 해외 사업 역량 강화 및 핵심인력 확보

- 해외 사업 강화를 위한 거점 확대 지속
 -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설립(2월), 일본사무소 지점화(3월)
- 해외 로컬 리더십 강화를 위한 해외 우수 인력 추가 확보



〈삼성전자 갤럭시S4 Unpacked〉



〈CES 2013 삼성전자관〉



〈MWC 2013〉

Ⅲ. '13년 2분기 광고시장 및 당사 영업 전망

- 국내·외 광고시장 전망
- 당사 영업 전망

2분기 국내 · 외 광고시장 전망

■ 세계 광고시장 : 경제 불황 불구, 소폭 반등 전망

- '13년 글로벌 광고 시장 5,177억불 전망 (전년비 4.1%성장)
 - '12년은 런던올림픽 등의 대형 이벤트에도 불구, 유로존 위기로 前年比 3.3% 성장한 4,973억불
 - '13년은 라틴아메리카/아시아지역, 영역별로는 디지털부문 성장 확대 전망

(출처: ZenithOptimedia Advertising Expenditure Dec.2102)

■ 국내 광고시장 : 계절적 요인으로 소폭 증가 예상

- 2분기 광고경기는 소폭 증가 예상
 - 2분기 광고 경기 예측지수(KAI; Korea Advertising Index) : 135.7
 - 지상파TV 132.5, 인터넷 131.1, 케이블TV 126.9, 라디오 109.5, 신문 102.0
- 업종별 증감 예상
 - 화장품 및 보건용품(180.0), 패션(177.7), 음료 및 기호식품(161.5), 식품(158.9), 금융 및 보험(142.6), 유통(137.4),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(135.5) 등에서 광고비 집행이 늘어날 전망

당사 2분기 영업 전망

☑ 광고성수기를 맞아 국내 광고주 마케팅 활동 증가 전망

- 화장품, 패션, 식·음료 업종 광고주 마케팅 증대 전망
 - 화장품(아모레퍼시픽, 스킨푸드), 패션(제일모직, 금강제화, 코베아), 식·음료(동서식품, CJ 등)
 - 삼성전자(갤럭시S4), KT 등 IT광고주도 지속적인 마케팅 수행 전망

☑ 비계열 광고주 개발 확대 전망

- SK기업광고 영입 等 대형 비계열 광고주 영입
- 미디어시장 복잡화에 따른 미디어대행 광고주 확대 ('12년: 매일유업, 키움증권 等)

☑ 자회사 영업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

- 중동/아프리카 : One Agency co-work확대를 통한 영업 활성화
- '12년 인수기업(美 McKinney, 中 Bravo Asia)와의 공동 업무 확대

☑ 해외사업 확대를 위한 글로벌 영업 확대 기대

- 해외 리테일 마케팅 확대를 통한 광고주 대행 확대 전망
- 신규 거점 확대를 통한 시장 확대에 수익 창출



Thank you

